

▶ 신천지의 잘못된 주장들

1. 예수의 영이 이만희와 함께 한다(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모든 이단들이 동일하게 주장했던 말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JMS의 정명석,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 1:7)

신천지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만희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찌르는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만희에게 임한 예수의 영을 각 사람, 즉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눅 24:36-43)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거나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이만희에게 예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2.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 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 22:15)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롬 3:7-8)

바울도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거짓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천지가 '모략'이라는 말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사야 11:2**의 말씀에서도 모략은 거짓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에짜'라는 단어로써 **counsel, advice, plan**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지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신천지는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이다?

신천지들은 천국이 과천에 이루어졌고 그들이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 17:20-21)

이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4. 이만희는 계시록을 받아먹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계 5:1)

이 인봉한 책을 이만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먹었고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었기에 이만희가 계시록에 정통한,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 깨달아 안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의 봉인된 책은 계시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봉인된 책이 요한에게 보였을 때 그 계시록은 요한에 의해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봉인된 책이 요한계시록일 수는 없습니다.

5.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신천지가 전도대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낮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찌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세기 4:14)

말씀을 보면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전에 사람은 없습니다.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45)

첫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외의 사람이 없었으면 도대체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분명 말씀에 가인은 사람이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 라고 했으나 자신의 자식을 부모가 죽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럼 아벨? 그는 죽었고, 셋? 그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짚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4:17)

가인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어디서 튀어 나온 걸까요? 사람을 또 지으셨습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4:1)

"득남 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안 했습니다. "득남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딸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던라 (창세기 4:2)

아벨을 낳는 것은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가인은 장자니까 특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축복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딸은 기록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장자 외에 계보에 넣지 않으며, 딸은 당연히 언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담의 딸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담은 창조 때부터 성인이었습니다. 하와 역시 성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부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일백 삼십 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5:3)

130세에 셋을 낳았다면, 그 사이에 가인과 아벨 외에 딸도 낳았을 수 있습니다. 그 딸 중에 하나가 가인과 결혼했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결혼했다면 당연히 아벨도 결혼했을 것입니다. 아벨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성경은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아벨이 살아 있을 때는 가인이 장자였고, 아벨이 죽었을 때는 셋이 장자의 권한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벨의 자녀

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인을 만난다면 죽일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또는 조부를 죽인 자를 살려 둘 이유가 있습니까? 반면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들이 가인을 쓸데없이 죽일 이유는 없습니다. 창세기 당시에는 아직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인을 죽일 이유가 있는 자는 아벨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아벨의 후손이라 보는 것이 더 바를 것입니다.

6.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것은 뭔가를 행하거나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21절 한 절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기만 한다고 다 천국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 율법 그 자체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에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찾으며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는 '열매'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행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열매)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

1.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2.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3.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날마다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